

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시점

2025. 10. 02.(목요일) 12:00

배포 2025. 10. 02.(목요일) 12:00

LA한국문화원, 해설이 있는 발레 국립발레단 '호두까기 인형' 상영

- 11월 21일,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연말의 낭만 동화-

LA 한국문화원(원장 이해돈)은 한국의 예술의전당(SAC)과 공동으로 오는 **11월 21일(목)**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'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- 예술의전당 시리즈'의 마지막 작품으로 국립발레단 <호두까기 인형>을 상영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상영작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'살아있는 전설' **유리 그리가로비치**의 안무 버전(1966년 볼쇼이 극장 초연)으로,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무대 구성과 고난도의 안무, 매력적인 스토리를 통해 전 세대 관객을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안내한다. 또한 본 작품은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2000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**13년간 전석 매진 기록을 이어온 스테디셀러**를 스크린으로 옮긴 상영작이다.

<호두까기 인형>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다. 무용 측면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캐릭터와 인형들이 등장하며, 2막에서는 왕자와 마리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각국 인형들이 등장해 민속적이고 이국적인 춤을 선보인다. 음악적으로는 작곡가 **차이콥스키**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인다. 그는 2막 '눈송이 왈츠'에 합창을 삽입해 겨울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으며, '사탕요정의 춤'에는 프랑스에서 직접 찾아온 신악기 **첼레스타**를 사용해 투명하고 영롱한 음색을

구현했다. 또한 피콜로로 표현된 경쾌한 중국 춤, 현악기와 관악기의 강렬한 러시아 춤 등 각 나라별 음악적 색채가 정교하게 어우러져 있다. 특히 ‘꽃의 왈츠’, ‘눈의 왈츠’ 등 다채로운 왈츠 음악은 관객들에게 마치 **무도회(Costume Party)**에 초대된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.

또한, 상영회에 앞서 관객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, LA 출신 한인 발레리나 스테파니 김*(Stephanie Kim)이 ‘호두까기 인형 이야기’ 작품과 발레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 시간을 마련했다. 해설은 오후 6시 30분, 상영은 7시에 시작된다.

* Stephanie Kim

지난 16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과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, LA 오페라, 로마 오페라 극장, LA 발레단 등과 협업했다. <돈 워리 달링> (Don't Worry Darling), <피터팬 라이브 더 뮤지컬>, 드라마 <루시퍼> 등의 작품에 출연했고, 다수의 뮤직비디오에 안무가로 참여했다. 최근 에이미 맨포드(Amy Manford)의 뮤직비디오 <A Ghost of You> 안무로 International MV Underground Festival 최우수 안무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매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<호두까기 인형>을,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이 소속된 국립발레단의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상영회는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즐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. 특히 이번 행사는 ‘Costume Party’ 형식으로 진행되며, 관람객들은 공연 속 인물이나 겨울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. 코스튬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모든 관람객에게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준비한 특별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.

이해돈 LA 한국문화원장은 “이번 예술의전당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‘호두까기 인형’ 상영은 연말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했다”며, “생생한 음향과 배우들의 섬세한 동작, 연주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상영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상영은 무료 관람이며,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. 예약은 KCCLA 웹사이트(www.kccla.org)에서 가능하며, 문의는 이메일 kelly@kccla.org 또는 전화 (323) 936-7141로 하면 된다. /끝/